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16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76.90원 (+4.20원)

KOSPI
6,091.39 (+123.64, +2.07%)

KOSDAQ
1,152.43 (+30.55, +2.72%)

국고채 10년 금리
3.655 (-0.00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기업분석

한국단자	빨라진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것 [송선재]
브이엠	예상보다 더 좋네요 [김록호]
SK바이오팜	1Q26 Pre: 신약 성과로 주목할 한 해 [김선아]

산업분석

유틸리티	SMP 상한제 재시행 시 발동 조건은 충족 가능 [유재선]

Monthly

2차전지	3월 ESS Battery : 유럽 Grid ESS 증가 [김현수]

글로벌리서치

JPMorgan Chase	변동성 확대에 따른 비이자이익 급증으로 컨센서스 상회 [최정욱]
Citigroup Inc	어닝서프라이즈에 역대 최대의 자사주 매입. 여수신도 양호 [최정욱]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E&A, 삼성증권, 동국제강, KSS해운, 리노공업, 대성하이텍, 우리넷

하나증권

2026년 4월 16일 | 기업분석

한국단자 (025540)

빨라진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것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4.15)	7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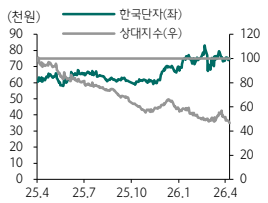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091.39
52주 최고/최저(원)	83,100/57,900
시가총액(십억원)	755.6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0,11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4.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4
외국인지분율(%)	28.59
주요주주 지분율(%)	
이창원 외 10 인	34.28
Yazaki	7.2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62	1,534
영업이익(십억원)	157	171
순이익(십억원)	125	136
EPS(원)	12,348	13,416
BPS(원)	123,974	134,18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168	1,297	1,510	1,443
영업이익	64	112	171	139
세전이익	70	100	201	136
순이익	49	73	142	106
EPS	4,677	7,000	13,654	10,383
증감율	(22.6)	49.7	95.1	(24.0)
PER	11.1	10.7	4.9	6.5
PBR	0.6	0.8	0.6	0.6
EV/EBITDA	3.9	4.5	2.6	2.4
ROE	5.6	7.8	13.2	9.1
BPS	83,872	89,779	103,622	114,828
DPS	700	700	2,200	3,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사업을 인수할 예정

한국단자의 지배구조 개선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단자가 공시를 통해 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사업 법인(=케이티 인터내쇼날)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로부터 신설사업 법인의 지분 100%를 383억원에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2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첫째, 기존 주주가치 제고 계획대비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기존 계획은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지분(=한국단자 지분 9.93%를 제외한 90.07%)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2027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반면, 신규 계획은 케.이.티.인터내쇼날은 존속 법인으로 남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 법인인 케이티 인터내쇼날을 설립한 후 지분 100%를 2026년 5월 8일 인수하는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속도가 1년 반이나 당겨진 것이다.

둘째, 신설 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다. 한국단자는 신설 법인인 케이티 인터내쇼날의 지분 100%를 383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기존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사업부문이 2025년 기준 매출액 1,172억원, 영업이익 116억원, 당기순이익 172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P/E 2배 초반인 것이다. 또한, 케.이.티.인터내쇼날이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기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 중 2%만 남기고, 약 360억원의 현금 및 부동산을 신설법인인 케이티 인터내쇼날로 이전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인수 금액은 더 저렴하다.

한국단자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

케.이.티.인터내쇼날은 1990년 설립된 회사로 한국단자와 같이 자동차/전자/통신용 커넥터를 제조/판매한다. 주주는 이원준 80.12%, 경원장학재단 9.95%, 한국단자 9.93% 등 3개 주주인데, 최대주주인 이원준씨가 한국단자의 대표이사이자 개인 최대주주(7.20%)이기도 하다. 케.이.티.인터내쇼날이 2025년 기준 1,1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특수관계자인 한국단자로부터 925억원을 매입하면서 내부거래 관계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요구를 받아 왔다. 이번에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이 사업부문을 한국단자로 매각하게 되면서 내부거래 관계가 제거되고, 그룹 내 지배구조도 크게 개선되게 되었다.

P/E 5배 중반으로 하락.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것

한국단자의 현재 시가총액은 7,556억원이다. 2026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 1,100억원 대비 P/E 6.8배, P/B는 0.6배 중반의 Valuation이다. 전기차 둔화로 2025년 미국 법인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고객사와의 비용 보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폴란드 법인과 케이티네트워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케이티 인터내쇼날의 실적이 연결로 편입됨에 따라 P/E는 5배 중반까지 하락하게 된다. 최근 3년 주당 배당금이 급격하게 증가(700원→2,200원→3,200원)하면서 4.3%의 배당수익률과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배당성향 25% 이상+배당금 10% 이상 증가)에도 해당된다.

2026년 04월 16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브이엠 (089970)

예상보다 더 좋네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84,000원(상향)
현재주가(4.15)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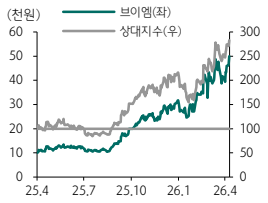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52.43
52주 최고/최저(원)	50,000/10,500
시가총액(십억원)	1,220.6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24,772.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7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5
외국인지분율(%)	12.21
주요주주 지분율(%)	
최우형 외 2 인	10.50
국민연금공단	7.5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2.6	312.0
영업이익(십억원)	74.3	90.4
순이익(십억원)	64.7	75.7
EPS(원)	2,280	2,875
BPS(원)	8,129	10,39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0.3	144.4	339.4	402.1
영업이익	(8.6)	24.7	98.5	121.3
세전이익	(4.6)	27.3	109.3	132.1
순이익	(3.5)	26.1	82.1	99.1
EPS	(135)	1,018	3,409	4,113
증감율	적지	흑전	234.87	20.65
PER	(50.89)	29.67	14.67	12.16
PBR	1.20	4.43	5.08	3.67
EV/EBITDA	(14.16)	24.07	11.14	8.50
ROE	(2.80)	17.33	37.64	32.08
BPS	5,709	6,824	9,851	13,616
DPS	0	0	0	0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1Q26 Review: 서프라이즈 시현

브이엠의 26년 1분기 매출액은 889억원(YoY +397%, QoQ +75%), 영업이익은 301억원(YoY +1,505%, QoQ +223%)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의 추정치대비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25% 상회했다. 호실적의 주요인은 고객사의 M15x 신규 투자 및 1c나노 전환 투자의 수혜가 당초 예상대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c나노 전환 투자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파츠 매출액도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이익률 개선에 기여했다. 과거 최고 매출액이었던 21년 1분기 860억원을 초과 달성하며, 영업이익 역시 당시 261억원을 뛰어 넘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을 갱신했고, 영업이익률은 22년 2분기와 동일한 34%를 시현했다.

2Q26 이후 실적도 양호. 높아진 실적 가시성에 주목

26년 2분기 매출액은 902억원(YoY +130%, QoQ +1%), 영업이익은 280억원(YoY +533%, QoQ -7%)으로 추정한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고객사향 수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말 성과급 관련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2분기 이후 영업이익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2026년 연간 매출액은 3,394억원, 영업이익은 985억원으로 전망한다. 기존 연간 최대 매출액이었던 2017년 1,781억원대비 2배 가까운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당시 기록했던 3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전망할 때에는 임직원 수가 2017년 64명에서 2025년 10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던 부분이 우려스러웠다. 다만, 금번 1분기 실적을 통해 과거 최대 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며 영업이익 경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률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 최선호주 유지

브이엠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84,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은 2026년 EPS를 기존대비 33%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한다. 26년 1분기 실적 이후의 실적들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26년 하반기는 물론 2027년에도 모멘텀은 유효하다. 현재 진행중인 상위 버전의 장비가 고객사 내에서 테스트가 진행중이고,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이슈는 빠르면 26년 하반기 중에도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는 이벤트다. 아울러 2027년은 M15x 잔여 공간 및 용인 1공장 투자라는 가시성 높은 수혜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PER 13.7배에 불과해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어 전공정 장비 업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2026년 4월 1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바이오팜 (326030)

1Q26 Pre: 신약 성과로 주목할 한 해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하향)
현재주가(4.15) 105,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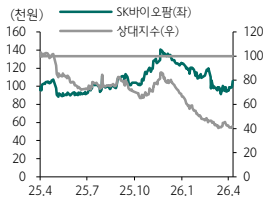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091.39
52주 최고/최저(원)	140,700/88,500
시가총액(십억원)	8,277.7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78,313.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19.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6.4
외국인지분율(%)	13.25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4 인	50.10
국민연금공단	6.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24.1	1,148.3
영업이익(십억원)	327.2	468.6
순이익(십억원)	264.2	375.3
EPS(원)	3,535	5,025
BPS(원)	14,353	19,53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47.6	706.7	895.0	1,159.9
영업이익	96.3	203.9	288.2	421.0
세전이익	72.6	150.9	241.7	374.1
순이익	240.7	267.0	196.5	304.1
EPS	3,074	3,409	2,509	3,883
증감율	흑전	10.90	(26.40)	54.76
PER	36.14	36.55	42.13	27.22
PBR	15.93	12.00	8.20	6.30
EV/EBITDA	75.53	43.07	26.31	17.75
ROE	58.01	39.28	21.56	26.18
BPS	6,975	10,382	12,891	16,774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1Q26 미국 처방량과 도매 물량 모두 QoQ 성장할 것, 마일스톤으로 이익도 보전

1Q26 실적은 매출 2,122억원(YoY+47.0%, QoQ+9.2%), 영업이익 771억원(YoY+200.5%, QoQ+66.7%, OPM36.4%)으로 전망된다. 미국 Xcopri 처방량(TRx)은 QoQ 2.5% 증가하였고, 작년 동기와 달리 4분기 때 도매상으로 물량이 몰려서 나가는 현상을 조절하여 매출도 QoQ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분기에 파트너사가 시장 진입 국가를 확장함에 따른 마일스톤(한국 등 30개 국가 판권을 획득한 동아ST 추정)이 이번 분기에 들어오면서 이익률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 외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판매, 일본에서 2H26 내 허가 및 시판, 그리고 그에 따른 로열티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던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인데, 이에 따르면 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R&D 단계상 변경 사항이 없어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특이 사항은 없고, 2분기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4분기에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위기 하에, 우리는 '26년 연간 매출 8,950억원(YoY+26.6%), 영업이익 2,882억원(YoY+41.3%, OPM32.2%)으로 추정한다. 회사는 여전히 2nd 프로덕트 도입에 따른 부대 비용, 제네릭 개발사와의 소송 비용 (물질특허 '32년까지이고, 실무와 시기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 높음) 등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이던스 보다 판관비를 더 적게 추정하였다.

'26년은 신약들의 전임상 데이터 확인 및 임상 진입 소식으로 지켜볼 것

동사는 4Q25 실적발표에서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공개하였고, 올해 몇 개의 파이프라인은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RPT(방사성의약품)인 SKL35501이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 대상으로 1H26 내 1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SKL37321(RPT, 항암제)과 [225Ac]ROR1-RPT도 '27년 IND 제출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지금까지 엑스코프리 하나로 직접 미국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과 30%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하며 시장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으니, 학회 등을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하며 새로운 성장을 지켜볼 때이다. 최근 Pluvicto로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장악한 Novartis가 중국 Zonsen PepLip Biotech으로부터 $50mn에 새로운 RPT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 RPT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needs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주가 150,000원 하향, 늦어지는 2nd Product 도입과 R&D 초기단계 고려

목표주가 하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WACC 값의 빠른 상승과 판관비의 급격한 증가가 주된 이유이나, 수년간 2nd Product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개발에 돌입한 후보물질이 너무 초기단계에 있어 기업가치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엑스코프리 매출 외에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2026년 4월 16일 | 산업분석_Update

유틸리티

SMP 상한제 재시행 시 발동 조건은 충족 가능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16일

한국전력(051600)

BUY | TP 73,000원 | CP 44,350원

3년 전에 일몰된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 상한제)는 2022년 5월에 시행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1년의 시한이 지난 2023년 11월 일몰되었다. 상한가격 발동 조건은 직전 3개월(M-1부터 M-3) SMP 평균이 과거 120개월(M-4부터 M-123) 월별 SMP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이다. 상한가격은 120개월 평균 SMP의 150%로 산정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 연속 발동했다.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금지에 따라 3월 일시 해제 이후 2023년 4월 마지막으로 발동되었다. 당장 다음달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산식에 따라 상한가격은 166.55원/kWh으로 산출된다.

월별 SMP 과거 120개월 중 상위 10%(12번째)는 164.86원/kWh 이상

2016년 4월 이후 값을 살펴보면 월별 SMP 상위 10개의 값은 최고 254.36원/kWh, 최저 164.86원/kWh 범위로 형성된다. 11번째 값은 192.75원/kWh이다. SMP가 kWh당 160원대 중반을 일시적으로 상회한다는 가정 하에 발동 가능한 기간은 3개월로 볼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어도 160원대 중반 상한가격과 실제 SMP와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국전력과 발전사 모두에게 영향이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가 과거 매커니즘 그대로 다시 도입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확인되어야 한다. 2022년 2월부터 월별 SMP가 kWh당 190원대를 상회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120원대로 낮다는 점도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 원자재 가격 레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과거 제도 기준으로 발동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현재 주요 지표 감안한 SMP 상단은 180원/kWh 수준

원/달러 환율 1,480원, 국제유가(브렌트) 100달러/배럴, JKM 20달러/mmbtu로 추정한 SMP 상단은 180원/kWh 수준이다. LNG 개별소비세 등 부대비용을 감안한 수치이며 미국산 LNG(Henry Hub)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가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상단 도달은 불가피하다. 만약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전되면서 지표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180원/kWh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 환율 1,460원, 유가 90달러/배럴, JKM 20달러/mmbtu 조건에서 추정되는 SMP가 166원/kWh 수준이다. SMP 상한제 재시행 시 발동 조건인 3개월 평균 SMP 165원/kWh 상회 조건은 현재 에너지 병목현상의 영향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물이다. 지난 2022년처럼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유가 대비 3~4배 가량 상회하지 않을 경우 200원대 SMP는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160원/kWh 중반 이상 범위로 SMP가 형성되는 환경에서는 발동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제도의 재시행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일부 경계는 필요하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3월 ESS Battery : 유럽 Grid ESS 증가

2026년 3월 ESS Data in detail | 2026.4.16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3월	글로벌	18.4	48.5	5.9	Flat	24.2	32.9	누적 (1-3월)	51.3	36.9	17.3	9.4	68.5	28.8
	미국	1.6	-60.3	0.8	Flat	2.5	-50.4		7.3	25.3	2.0	-1.0	9.3	18.5
	유럽	3.4	163.7	0.8	Flat	4.3	99.8		6.4	110.3	2.4	10.0	8.8	69.0
	중국	8.5	23.8	2.3	Flat	10.9	17.9		24.4	0.9	6.9	9.2	31.3	2.6
	기타	4.8	N/A	1.9	Flat	6.6	243.0		13.1	201.4	6.0	13.3	19.1	98.0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YoY(%)		설치량(GWh)	YoY(%)
3월	Grid	12.6	62.0	누적 (1-3월)	38.1	68.4
	Wind+Solar	0.8	N/A		1.2	21.3
	Wind	0.3	79.7		1.3	-66.1
	Solar	3.8	-13.5		9.1	-8.0
	기타	0.7	931.7		1.3	2,003.2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케미스트리

- 3월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3.4%(MoM +2.3%p), NCM 3.0%(MoM +0.7%p), Flow Battery 0.6%(MoM -2.6%p), Sodium based 0.6%(MoM -0.7%p), 기타 2.3%(MoM +0.3%p)

시사점 및 의견: 장주기 ESS 설치 확대 전망

- 3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24.2GWh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68.5GWh의 신규 ESS가 설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가동과 유럽의 견조한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 신규 설치량의 76%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ESS의 경우, 3월에 18.4GWh(YoY +49%) 규모의 ESS가 새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지역별로 보면, 3월 신규 설치량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보였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설치량이 증가했고, 특히 유럽의 증가폭이 컸다(+110%).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와 지연됐던 전력 프로젝트의 상업운전(COD) 집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설치량 중 24%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3월에 글로벌 5.9GWh(YoY Flat)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모든 지역(미국, 유럽, 중국, 기타)에서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Flat 수준이었다.
-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유형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의 경우 3월 12.6GWh가 신규 설치되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3월 풍력 연계 ESS 설치량은 전년 0.3GWh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나, 태양광 연계 ESS는 3.8GWh로 -14% 감소하면서, 전체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합산) ESS 합산 설치량은 3월 4.9GWh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입찰·인허가 일정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6년 3월의 YoY 감소는 수요 둔화에 기인하기보다 입찰·가동 스케줄에 따른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ESS 수요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주기 ESS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4년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2029~2032년까지 6GW 규모의 청정에너지 전력 조달을 의무화하고, 이 중 최소 25%를 확정용량(firm capacity, 전력 수요 피크 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용량)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3월 조달 방식 결정에서는 해당 6GW를 단순 설비의 총용량이 아닌, 실제 전력 수요 시 공급 가능한 수준(인정용량, NQC)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기준 변화에 따라 실제 공급 가능한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장주기 ESS 중심의 시장 성장세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ESS는 단순 저장 수단을 넘어 전력 공급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장주기 ESS 중심의 설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4월 16일 | Global Equity

JPMorgan Chase (JPM.US)

변동성 확대에 따른 비이자이익 급증으로 컨센서스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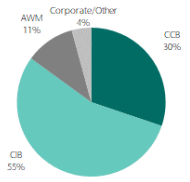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38.04 USD
CP(4.15)	311.12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금융
주요 영업			은행
홈페이지			www.jpmorganchase.com
시가총액(십억USD)			834.49
시가총액(조원)			1229.41
52주최고/최저(USD)			337.25/226.336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91
블랙록			7.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9.8	3.0	33.5
상대	4.7	(1.9)	4.3

순익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77,556	182,447	194,439	202,743
세전이익	75,081	72,595	76,480	78,667
지배순이익	58,471	57,048	59,933	61,408
EPS(USD)	16.7	20.0	21.7	23.3
EPS(YOY, %)	34.7	20.0	8.4	7.5
보통주ROE(%)	18.2	18.2	16.6	16.7
PER(배)	12.0	12.0	14.3	13.3
PBR(배)	2.1	2.1	2.3	2.2
배당수익률(%)	2.0	2.0	2.0	2.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1분기 순익은 컨센서스를 10% 상회. 투자은행 수익 증가 등 비이자이익 대폭 증가

JPM 1분기 순이익은 YoY 12.6% 증가한 164.9억달러(EPS 5.94달러)를 기록해 컨센서스를 10% 상회했다. 1) NIM이 2.50%로 QoQ 4bp 하락하고, 총대출은 QoQ 0.7% 증가에 그쳤지만 4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대출 평잔 증가로 순이자이익이 253.7억달러를 시현해 호조세가 지속됐으며, 2) 시장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이 늘면서 Market 부문 수익이 확대되고, 자산관리 및 투자은행 수수료 증가 등에 힘입어 비이자이익도 대폭 증가했다. 총대출이 0.7% 성장에 그친 이유는 신용카드대출이 QoQ 3.5%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규제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관비는 268.5억달러로 QoQ 12.0%, YoY 13.8% 증가했는데 수익 연동 성과급 지급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브로커리지 비용 및 판매수수료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 4) 대손비용은 25.1억달러로 QoQ 46.1%, YoY 24.1% 감소했다. 이는 대손상각액 자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 악화 영향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무수익여신비율은 2025년 3분기말 0.70%를 기점으로 2개분기 연속 하락 중이며, 1분기에는 0.64%로 QoQ 3bp 하락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사모대출 관련 이슈가 당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회사측은 컨퍼런스콜에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및 credit risk 확대 가능성 질문에 대해 현재 연체율과 전이율, 재량적 지출과 필수적 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이전 추세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1분기 예수금은 QoQ 4.5% 증가했다. 동사 포트폴리오 기준 일반 소비자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 불과하며, 노동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한 당장 credit 관련 균열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대출과 관련해서도 전체 사모대출 레버리지론은 1.7조달러로 규모상 시스템적 위험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체적인 신용 악화 사이클이 도래한다면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기업부채 및 소비자부채보다 정부가 과잉부채라는 점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레버리지 대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효과로 사모대출 시장이 커졌는데 레버리지론 제한 변경으로 향후 관련 비즈니스의 일정부분은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1분기 주주환원 규모는 총 120억달러 내외. DPS 유지는 다소 아쉬웠던 요인

1분기 CET 1 비율은 14.3%로 QoQ 약 30bp 하락했다. 순익 효과 +82bp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61bp, 대출 증가에 따른 RWA 증가 요인 -43bp, AOCI 감소 영향 -13bp 때문이다. 1분기 중 자사주 매입과 배당지급액은 각각 약 81억달러와 41억달러(DPS 1.50달러)로 전분기 규모 총 120억달러와 큰 차이 없었다. 약 400억달러 내외의 초과자본을 보유 중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반기마다 상승하던 DPS가 금번에는 유지된 점은 다소 아쉬웠던 요인이다

2026년 4월 16일 | Global Equity

Citigroup Inc (C.US)

어닝서프라이즈에 역대 최대의 자사주 매입. 여수신도 양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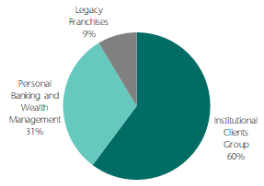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36.35 USD
CP(4.15)	129.58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금융
주요 영업	은행
홈페이지	www.citigroup.com
시가총액(십억USD)	222.22
시가총액(조원)	327.33
52주최고/최저(USD)	130.99/61.303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52
블랙록	9.4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2.6	29.8	101.4
상대	17.5	24.9	72.3

순수익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81,139	85,225	92,236	95,626
세전이익	17,045	19,827	26,087	33,885
지배순이익	12,681	14,305	19,542	26,577
EPS(USD)	6.0	7.1	10.5	12.3
EPS(YOY, %)	48.2	17.9	80.7	17.7
보통주ROE(%)	6.1	6.8	9.3	10.1
PER(배)	11.7	16.4	12.4	10.5
PBR(배)	0.7	1.1	1.1	1.0
배당수익률(%)	3.1	2.0	1.9	2.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5대 핵심사업 성장과 외환환산효과 등으로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 시현

Citigroup 1분기 순익은 YoY 42.3% 증가한 57.9억달러(EPS는 3.06달러)를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시현했다. 이는 5대 핵심사업 부문의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총영업이익이 YoY 14.1% 증가한데 기인했다. 1) 1분기 NIM은 2.46%로 QoQ 3bp 하락했지만 총대출이 QoQ 4.8%, YoY 12.5% 증가하면서 순이자이익이 YoY 12.3% 증가했고, 2) 비이자이익 또한 Market 부문 매출 급증과 Banking 부문 수수료 증가 등으로 YoY 17.2% 큰폭 확대되었다. 3) 판관비는 YoY 6.6% 증가했지만 5억달러 퇴직금비용 제외시 YoY 4% 증가에 그쳤다. 4) 대손비용은 28.1억달러로 늘어났는데 Barclays의 아메리칸 항공 제휴카드 포트폴리오 선구매 약정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충당금 적립에 기인했다. 다만 기업대출은 잔액 증가에도 대손상각률이 사실상 0%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신용카드대출 상각률도 4.1% 수준에 그쳐 신용 사이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5) 일회성 항목으로 유효세율이 낮아진 점도 순익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 사모대출 익스포져는 약 220억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고, 98%가 투자적격등급으로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1분기 중 63억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해 분기 역대 최대 수치 기록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는 63억달러로 2025년 연간 자사주 매입액 130억달러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역대 최대 수치로서 초과자본을 투자자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며 총 200억달러 매입 계획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62bp 영향이 발생해 1분기 CET 1 비율은 12.7%로 QoQ 50bp 하락했지만 규제 요구비율 11.6%보다 110bp 높고, 100bp buffer를 감안한 회사측 목표비율 12.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회사측은 최근 규제당국이 내놓은 바젤3 엔드게임과 G-SIB, Stress Test NPR에 대해 RWA는 소폭 늘어나지만 G-SIB는 감소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버퍼까지 포함한 전체 구조를 고려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5년초 승인된 20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추가 자사주 매입 실시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총 매입 규모는 2025년 규모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높게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여수신 성장률. 오로지 Organic Growth만을 추구

1분기 총대출은 QoQ 4.8%, YoY 12.5% 증가했고, 예수금도 QoQ 3.0%, YoY 9.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상업용대출 성장률이 매분기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소비자대출은 신용카드대출 축소로 1분기에 소폭 감소했다. 환율 환산 효과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평잔 기준으로도 대출채권 QoQ 3%, 예수금이 2.0% 증가했다. 고무적인 점은 성장 대부분이 신규 고객 등 고객주도활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시장내 M&A 추진 등 자산 규모 확대 루머들이 있지만 오로지 Organic Growth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9,720	0.5%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800	-2.4%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7,505	8.4%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470	57.5%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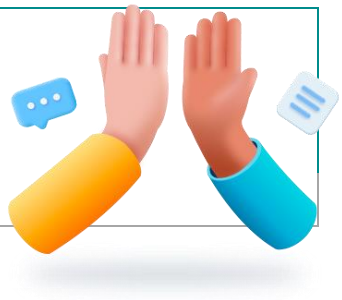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9.61	5.0%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5.95	22.6%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52.00	33.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03	20.8%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13	206,000	206,500	0.2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03,000	7.4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SDI (006400.KS)	4/13	481,000	470,500	-2.18%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1,800	1.17%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13	106,800	111,400	4.31%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동국제강 (460860.KS)	4/13	10,410	10,530	1.15%	•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철근시장 개선에 따른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에 따른 판매 확대와 후판 ASP 인상 기대
KSS해운 (044450.KS)	4/13	12,640	12,190	-3.56%	• 장기운송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성 대비 이익 가시성 높아 • 계약 갱신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이 확고해진 상황에서의 보다 제고된 주주환원 기대
리노공업 (058470.KQ)	4/13	111,800	111,600	-0.18%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대성하이텍 (129920.KQ)	4/13	11,000	11,600	5.45%	• 21년 이후 다수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방산 정밀 부품을 공급 •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수요 및 재고 확충 필요성 확대로 기존 대비 수요 확대 기대
우리넷 (115440.KQ)	4/13	13,000	18,460	42.00%	• 과기부 주도로 5G-SA 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백본망 전송장비 구축 수요 발생 전망 • 피지컬 AI로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전송망 장비 신규/교체 수요 성장 예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4%	-3.60%p	+65.37%	+26.3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03,000	7.4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1,800	1.17%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5,700	4.13%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06,500	23.5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00,000	1.39%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9,700	8.61%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5,900	9.87%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1,500	8.72%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3,300	17.36%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2,400	1.26%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80,000	16.93%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70,500	26.24%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27%	-8.16%p	+32.68%	-6.3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2.0%/0.4%,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51.13b/2.5%/27.8%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0.5%,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2.7%,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13.6%/24.7%,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1.2%/2.5%, 이전치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3k 이전치 219k)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40%, 2월 0.60%)	▪ 한국 3월 PPI(전년비)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3월 -16.3)	▪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잠정치) (E --/--, 이전치 -0.2%/1.60%) ▪ 미국 4월 3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이전치 1.60%)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